



VIP 고객과 함께하는 갤러리투어

KIAF 2015 / ART SEOUL

올가을, 국내 최대의 미술 축제라 불리는 KIAF 2015 / ART SEOUL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KEB하나은행은 해외 컬렉터들과 미술계 관계자들이 모두 주목하는 KIAF 2015 / ART SEOUL에 VIP 고객을 초청해 현대미술 흐름을 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하는 KIAF 2015 / ART SEOUL은 일본을 주빈국으로 선정하여 20여 개 일본 갤러리들을 초청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무라카미 다카사와 나라 요시모토를 비롯해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한꺼번에 만나 볼 수 있어 오픈 전부터 큰 관심이 집중됐다. 또한 'KIAF 2015 / ART SEOUL'에는 대만, 독일, 러시아,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등 11개국, 180여 개에 이르는 갤러리들이 참가해 국내외 미술의 대중화에 일조했다는 평을 얻

었다. 이러한 기대에 힘입어 이번 'KIAF 2015 / ART SEOUL'은 컬렉터와 미술계 관계자, 관객이 모두 함께 어우러진 국내 최대 미술 장터를 형성했다. 특히 VIP 고객과 일반인 관람을 이원화시켜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평소 관심이 있던 작품과 작가를 가까이에서 만날 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

도슨트에 설명에 따라 진행된 이번 갤러리투어는 미술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은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고객들은 다양한 작품들에 공감하면서도 계절과 잘 어울리는 예술적 분위기에 흠뻑 취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아트뱅킹을 자부하는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수준 높은 전시 기획을 통해 고객들과 예술적인 공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KEB하나은행은 지난 10월 7일 VIP 고객을 초청해 'KIAF 2015 / ART SEOUL'을 관람하는 갤러리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투어는 국내 최대 미술 축제라고 할 수 있는 'KIAF 2015 / ART SEOUL'을 관람하며 세계 미술시장의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글 여경미 기자 사진 원동현 기자



VIP 고객과 함께하는 갤러리투어

비선재 개관 기념 최영욱의 달항아리展

이촌동 골드클럽은 지난 10월 7일 VIP 고객들과 함께 '최영욱의 달항아리展'을 관람했다. 한남동에 새롭게 개관한 비선재 갤러리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는 고객 20여 명들을 위해 최영욱 작가가 직접 나서 작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 여경미 기자 사진 김현동 기자

가을을 상징하는 자연물은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보름달이 아닐까? 올 추석에도 크고 하얀 슈퍼문(Super Moon) 앞에 저마다 가슴속에 품었던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백자의 하나인 달항아리는 이처럼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 넉넉한 품과 완만한 곡선의 미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국보 209호인 달항아리는 세계에 12점의 작품이 현존하고 있는데, 화가들은 각자만의 스타일로 이를 해석해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영욱 작가는 '카르마(Karma, 業)'라는 모티브를 달항아리 안의 수많은 빙얼(갈라짐)로 섬세하게 표현해 내는 것이 특징이다.

그의 작품은 필라델피아 뮤지엄, 빌게이츠 문화재단, 스페인 왕실, 룩셈부르크 왕실 등에 소장되

면서 해외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한남동에 오픈한 갤러리 비선재에서는 최영욱 작가의 작품 20여 점을 대거 전시하고 있다. 독특하게 연결된 3층 갤러리 전체를 가득 메운 달항아리는 동호대교를 향해 난 사각형의 통창과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와 감성을 자아낸다.

이촌동 골드클럽에서는 이번 전시에 고객들을 초청해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설명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는 최영욱 작가가 직접 참여해 작품의 모티브가 되는 '카르마(karma)'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한강의 정취 속에서 옛 선조들의 숨결과 작가 정신을 함께 경험한 이번 갤러리투어는 고객들의 예술적 감성을 만족시켰다.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새로운 기획의 갤러리투어를 통해 진정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

